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Korean Bankruptcy Lawyer's Association

2017. 10. 14

발표자 : 윤준석 변호사
尹俊皙 Yoon, JoonSuk

CONTENTS

Korean
Bankruptcy Lawyer's
Association

- Ⅰ 단체소개(集團介紹)
- Ⅱ 창립선언문(成立聲明)
- Ⅲ 창립목적·연혁(成立目的·歷史)
- Ⅳ 주요활동(主要活動)
- Ⅴ 향후계획(未來計劃)



Korean Bankruptcy Lawyer's Association



창립선언문(成立聲明)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채 극심한 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자의 신선한 새출발(Fresh Start)을 위한 법·제도는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마련된 법·제도마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 하는 것을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려는 시선이 강하고, 법원이 파산·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이른바 법률브로커의 난립으로 인한 남용을 고려하더라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자들의 사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려는 실무 태도와 도산전문변호사단체 하나 없을 만큼 변호사들도 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조력하지 못한 점에 큰 이유가 있다.

이에 발기인들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개인인 채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개선하려는 뜻을 모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창립하려는 것이다.



설립목적 (成立目的)

1

채무자의 권익 옹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2

변호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분야 실무능력 양성

3

변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교육

4

채무자 회생 관련 업무수행 변호사들 간 친목 도모 및 교류 증진

5

국내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연구 및 국제교류 증진

연혁 歷史

2016. 7. 8. 소비자도산변호사협회
창립 결의



2016. 10. 22. 제7회 동아시아금융
피해자 교류회 참가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



2016. 8. 19. 한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
창립 (회원 10명) 한국파산회생변호
사회로 단체명칭 변경

2017. 4. 13. 제2차 정기총회, 특별
세미나 (미국 파산법원의 운영과
시사점) 개최



2017. 8. 17 창립1주년 기념식
(회원 39명)



2017. 9. 16. 제2회 변호사전문연수
(대전지방법원변호사회관)



Korean Bankruptcy Lawyer's Association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의견서 제출

- 파산관재인 현장 방문조사 삭제
- 채무자도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서 제출 기회 부여
- 개인회생시 배우자 관련 서류 등 과도한 서류제출 조정
- 개인회생시 중지명령, 채권자 목록 추가신청 규정 조정
- 채권자 집회시 채무자 출석을 신청대리인 출석 허용
- 변제기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
- 가용소득 산정시 생계비의 현실화 필요
- 면책시 신용교육 의무화 규정 수정

법원연계활동 · 法庭相關活動

주제

-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한 채무자 회생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방안
- 개인도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
- 회생채무자에 대한 조기 종결과 채무자의 재도약



서울회생법원 합동세미나 참석



제1회 변호사 인정연수 (파산회생의 이해 및 실제)

주제

- 부채와 인권
- 채권추심 대응방법
- 법인파산과 기업회생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주제

- 미국 파산법원의 운영과 파산전문 변호사의 역할

미국에서 파산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원근 변호사(버지니아주, 매릴랜드주 변호사)가 참석해 미국 선진적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사회의 파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며 현재 한국의 파산제도운영이 미국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원근 변호사 초청 세미나 (미국 파산법원의 운영사례)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 공동기자회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의견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국회차원 입법과제
-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률방송 이영돈TV 출연

[이영돈PD, 변호사를 만나다]

12회 파산회생 전문 백주선 변호사

파산과 개인회생으로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백주선 변호사. 빛을 감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백주선 변호사와 만난 이영돈 PD,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본다.

채무자가 채무를 안고 살아가려면, 사회나 가족이 쳐야 할 문제가 커지게 되므로,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 파산을 시키고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채무 면제' 시책을 무작정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기존의 인식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무자지원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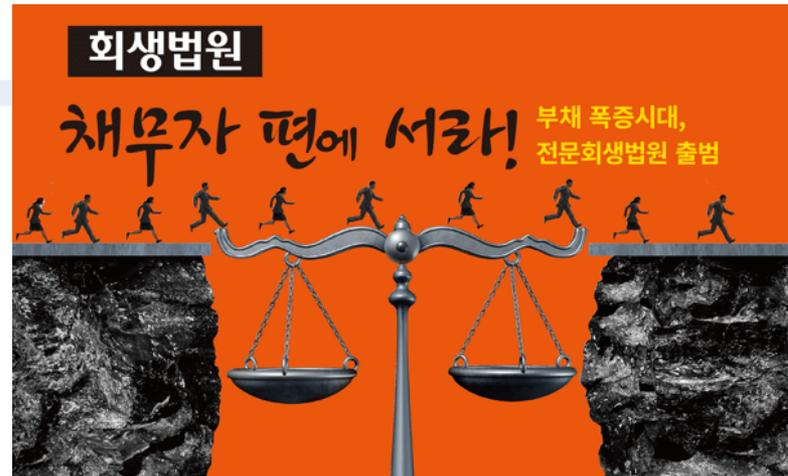
[채무자지원센터 설립]

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제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과중한 채무자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내에 채무자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제도 개선]

파산회생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활발한 의견개진 활동과 협력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무자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채무자 회생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의 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제도 개선



Thank you

Korean Bankruptcy Lawyer's
Association